

생각과 사실의 혼동에서 벗어남이 ‘깨달음’ 이다

용타 스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과

“<금강경>이 대승경전이라면 초기불교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고한 해탈을 원한다면 생활 속에 <금강경>이 있어야 한다.”

용타 스님(함양 행복선원 회주)은 8월 5일 3번째 법석에서 ‘<금강경>의 생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용타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생활화를 강조하지만 ‘상(相)’에 대한 경계만 강조돼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전달되지 못했다”며 “발원하는 삶과 육바라밀을 실천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표상적인 관념으로 분별 시비 집착에서 벗어나는 ‘즉비(即非)’ 수행법도 설명했다. 다음은 스님의 강론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금강경>의 핵심

<금강경>은 한국 불교 소의경전으로 대승불교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공(空)은 대승불교의 대표개념이다. <금강경>에는 공의 뜻이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 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금강경>은 대승불교 초기에 만들어져 중국 선종 제5조 홍인 이래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원효 스님이 <금강경소>를 저술한 것을 비롯해 많은 주석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금강경>은 사교(四教: 능엄, 반야, 기신, 원각)중 반야부류에 분류돼 스님들의 전문 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강경>은 한국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임에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전은 읽어서 뜻이 체화 돼야 한다. 경전의 뜻을 흡수하면서 경전의 뜻대로 살아 해탈을 해야 한다. <금강경>이 삶이 되고 인품이 되려면 뜻이 체화 돼야 한다. 경전은 목적을 살려주는 수단·도구·방법이다.



금과옥조로 여기는 모든 경전은 땀과 같음을 잊지 말라.

<금강경> 핵심 메시지를 알고자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 사성제(四聖諦), 12연기, 팔정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다. 이것이 오리지널 불교다. <금강경> 이전에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부터 공부하라. <금강경>은 연기법을 전하는 교재다.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과

초기 불교는 지식인을 위한 불교였다. 부처님의 근본불교를 이어받은 여러 부파불교들은 상근기(上根基) 외에 모든 중생 구제를 고민했고,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켰다.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은 첫째, 마음 깊은 곳부터 ‘무한 우주에 있는 유행무정, 유행무형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라!’는 큰 발원(發願)이다.

둘째는 그 발원에 부응하는 중생제도를 위해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불을 돕겠다는 보살원(菩薩願)이다.

셋째는 육바라밀의 삶을 살도 육바라밀의 삶의 태도가 흔적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청정심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대승사상은 경전에 표기 하던 하지 않던 전제된 기초 신념이다.

<금강경> 역시 마찬가지다. ‘은 중생을 제도하라!’고 발원하고, 제도의 길인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금강경>의 무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곧 파상(破相: 상을 깨뜨리다) 사상인 즉비(即非)를 강조하는 나머지 중요한 대승불교의 본 뜻이 부각되지 못했다.

<금강경>은 32분절로 분류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경의 구성은 도안(道安: 314~385) 이래 전통적으로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구분한다. 정종분에서 공극의 깨달음[究竟覺]의 제1조 건인 ‘구류중생(九類衆生: 卵生 胎生 濕生 化生 有色 無色 有想 無想 非有想非無想)을 모두 제도하라!’고 서약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무아(無我)·공(空)사상은 대승불교 이전에 많이 나왔다. <금강경>이 대승 경전이라면 ‘모든 존재를 제도하라!’고 서약하고, 그 제도 행위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최고의 진리를 배우고 닦으려는 마음을 낸 선남선녀는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금강경>의 내용이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무릇 있는바 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고 말한다. 첫째와 둘째 구절은 모든 존재의 허망함을 일깨운 것으로 현실을 바로 보게 한 내용으로 ‘마음자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셋째, 넷



용타 스님은...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64년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동대학 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66~1974년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를 하던 스님은 1974년부터 1983년까지 제법선원에서 20년거를 성안했다. 1980년 동사선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재 귀신사 회주, 성문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를 맡고 있다. 석사 논문으로는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저서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해탈 10분> 등이 있다.

경전을 익어 뜻대로 살아야 해탈
대승은 ‘행동하되 걸림없는’ 삶
<금강경>은 구유중생 제도가 바깥
‘상(相)’ 세우지 않는 실천 중요해

째 구절은 허망한 가운데 허망치 않은 존재(여래)를 말한 것으로 참된 수행방법과 목표의식을 뚜렷이 설파해 마음을 다스리도록 했다.

명료한 마음 다스리는 길 첫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발원’이다. 진정으로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즉 마음이 허공처럼 자유롭고 바다처럼 자비로워 지는 마음으로 발원해야 한다. 은 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마음이 떨리는 감동 속에서 우리나라와야 한다.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 하나만 간절하면 된다. 실천은 매일 반복해서 ‘은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루에 100번씩 100일만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면 반복한 것이 현실로 들어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다.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우주를 보듬어 보라. 내 지식들을 보듬을 때 따뜻해지듯, 전 존재가 따뜻하게 안아준다.

발원기도를 반복하라. 일념(一念), 유심(唯心)이 반복하면 진리에 이른다. 성취하겠다는 목표의식 다 음에는 목표실현을 위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행동의 태도가 중요하다. 해 놓고 생색을 내는 것을 상(相)이라고 한다. 행위를 하면서도 상(相)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각자 맡은 일을

잘 하는 육바라밀행을 해야 한다. 행하되 태도가 좋아야 한다. 이를 ‘즉비(即非)’라고 한다.

깊은 사유 없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강경>을 읽게 되면 상(相)없이 하라는 이야기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원과 육바라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비(即非) 시명(是名)

<금강경>을 이해하기 이전에 삶부터 이해하라. <금강경>이 목적인가, 우리 삶이 목적인가?

삶은 주객의 만남으로 시작한다. 주객의 만남이란 마음(識)이 육근(六根: 눈, 귀, 코, 혀, 몸, 뜻)을 통해 육경(六境: 색·소리·냄새·맛·촉·의)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인생을 살펴보자. 눈앞에 보이는 남편, 아이의 울음소리, 커피 향, 달콤한 꿀 맛, 산뜻한 바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그런데 주(主)인 마음에 객(客: 대상)인 남편, 아이의 울음, 커피 향, 꿀 맛, 바람, 어머니가 마음에 흔적으로 찍힌다. 이것은 분별, 시비, 집착이고, 촉수애취유(觸·受·愛·取·有) 곧 상처를 남긴다. 주객의 만남이 축이다. 축이 있으면 수(수)가 있고 느낌이 시작되면 애증이 시작된다. 좋은 것은 끌어들이고 싫은 것은 밀어내려고 취한다. 취(取)하게 되면 내 아뢰야사에 쌓이게 된다.

인생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이다. 말이란 곧 개념과 명제이다. 명제는 개념에 얽여진 것이니 결국 말이란 개념일 뿐이다. 개념은 주관적인 표상(表象)이다. 표상은 관념이요 생각인 표상일 뿐 지칭하는 사물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과 사물 자체인 사실(事實)과 혼동하며 산다. 생각

과 사실의 혼동에서 벗어난 심리상태를 ‘깨달음’이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컵’을 보이는 ‘컵’ 그대로를 사실로 아는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수긍하는 것이 얼마나 숭엄한 깨달음인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물(物)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컵은 곧 컵이 아니다. 우리가 뱉어내는 무수한 개념들은 깨어있지 않는 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저승사자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유·무형의 무수한 사물들을, 그 사물 자체(Ding an sich)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표상하는 관념물을 그 사물 자체인 것처럼 여긴다. 분별 시비 집착의 늪을 허우적거리며 무수한 고통과 싸움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것처럼 사는 것이 고통 받는 중생들의 삶의 실상이다.

‘A이다[常見]’ ‘B 아니다[斷滅]’의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해탈의 마음이 문제다. 상견이나 단멸이 나 모두 마음에 찍히면 그것은 흠이 된다. 상견도 단멸도 모두 즉비로 부정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색도 공이요, 공도 공이다’는 식의 명제가 가르침으로 내려오고 있다. <금강경>의 ‘즉비(即非)’는 ‘공(空)’과 같은 뜻이다. <금강경>은 비(非)로 부정하고 시명(是名)으로 살려내는 진공묘유를 드러내는 형식의 표현으로 현실과 이상을 한자리에서 구현해 내고 있다.

즉비가 수긍되는 순간 무념, 무상, 무주가 체현되는가 체현해 보라. 무념(無念)차원에서 허공같은 자성을 유념관조하고, 무상(無相) 차원에서 물 자체를 유념관조하고, 무주(無住)차원에서 걸림없는 삶을 유념관조하라. 이 경험을 1000번 정도 연습해보자.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편의상 ‘무엇’이라고 표현 할 뿐, ‘무엇’이라는 표상물은 결코 ‘무엇’ 자체는 아닌 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면 된다. 즉비 경험 자체가 니르바나다.

부처님은 “이치가 그러하니 나 붓다는 그 이치대로 관조하므로 걸림없는 삶을 산다. 그러하니 제자들도 나 붓다처럼 이치를 깨닫고 이치대로 천하를 관조하며 걸림없는 삶을 살 것이며, 천하의 중생들도 그러하길 바란다”고 권장했다. 이때 이치란 연기법(緣起法)이요, 이치대로 관조함은 즉비, 무아, 비아, 무념, 무상, 무주 등이다. 걸림없는 삶이란 해탈·대자대비·니르바나이다.

즉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한 고비라면, 이 고비를 넘은 다음 즉비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형성된 습관성 업장을 즉비라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벗어나야 한다. 즉비를 이해하는 것이 돈오(頓悟)이며, 이것을 활용하여 습관성[업장]을 벗어나는 일이 점수(漸修)이다. 곧 <금강경>은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품을 요청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성취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사유(正思惟) 곧 사색이었다. 즉비 이해를 위한 비결은 사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승의 뜻은 간단하다. 소승이 ‘걸림없음’이라면 대승은 ‘행동하되 걸림없음[應無所住 而生其心]’이다. **특별취재팀**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총정대행 : 목탁 해은 부원장 : 금당 범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